

하루를 시작하며



김동현 문학평론가·제주민예총 이사장

내란은 끝이 나지 않았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담화도 다 거짓이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무시한 채 극우 열성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만이 주권자라는 착각이다. 오만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후안무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차가운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

결국 역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다

보고도 아무 것도 느끼지 않는 엘리트 관료들의 행태는 '영혼 없는 관료'의 전형적 모습이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12월 3일 창문을 깨고 민의의 전당을 침략한 군인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현장을. 모두가 목격자이고, 모두가 증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 앞에서 우리는 자칭 한국 보수의 민낯을 봤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알량한 국회의원 배지다. 선거철에 표를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위선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와 반민주의 선택이다. 과

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이대로는 내일이 없다. 끌어내야 한다.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주권자가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미친 권력의 입을 막아야 한다. 내란 가담자들의 치졸한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다. 가진 자들에게 관대한 권력을 이제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은박담요 하나로 추위에 견디는 시민들의 분노는 차가운 겨울을 사르는 불꽃이다. 햇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단 하나의 몸짓이다.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이들에게 말한다. 미지광이의 복귀는 결국 당신들을 권력 유지의 불쏘시개로 태워 버릴 것이다. 여당 대표는 물론, 전직 대법원장까지 체포하려했던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시작. 독재 권력의 난동 앞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끌어내야 한다. 광장의 언어로, 시민의 법으로 그들을 단죄해야 한다. 주권자의 분명한 힘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망명들을 끌장내야 한다. 그렇게 '다시 만난 세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가 겨울이 지나기 전에 피어나야 한다. 매일 아침 '6411번 버스'를 타는 모든 이들의 손으로 무도한 권력을 끝내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반동의 무리일 뿐이다. 역사는 증언한다. 모든 반동은 결국 과거의 어둠으로 사라졌음을, 승리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사설

산지천 도로개선 방향 진중하게 결정해야

산지천은 제주시 최대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옆을 흘러 제주항까지 흐르는 하천이다. 율레길 18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최근 역사의 애환이 서려 있는 산지천 도로 개선사업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제주시는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산지천 일대 사괴석 도로를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괴석 도로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취한 조치다. 동문로터리에서 김반덕 기념관에 이르는 총 450m 구간 도로포장을 사괴석에서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공사다. 기존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개성한다. 또 기존 주차면을 이동하고 산지천변 보행로를 유효폭 2.0m 이상으로 확장한다. 문제는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는 측과 기존 도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점이다. 양 측 주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진중하게 결정해야 사안이다. 우선 산지천 광장 조성 당시 아스팔트가 아닌 사괴석 도로로 개설한 원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차량보다 사람들이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도로개선이 이뤄지면 차량 통행 증가로 보행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더욱이 산지천 도로는 부두로 향하는 관문인데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면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가로공원화 조성시 노숙자·주취자 관리도 문제다. 산지천은 영주 십경 중 하나인 '산포조어'의 장소다. 제주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인 만큼 제주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업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불가피하다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기후 위기'였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이 농업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사실상 기후변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셈이다. 피해 빈도와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2024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 20%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를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기후에 의한 농업경영의 변화는 이미 예견됐다.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는 철저한 대비가 있더라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도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3~5년간 기후 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88.4

%에 달했다. 폭염·이상고온과 폭우·홍수, 가뭄 등이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변화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워진다는 답이 많았다. 생산비와 판매 가격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오랜 기간 많은 정책이 난무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분명 쉽지 않다.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소멸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선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응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도정도 지자체 차원의 대응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백악이 무효가 된다.

열린마당

조천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전현태 제주라라대학교 응급구조과

러던 와중에 사이렌이 울렸고 나는 첫 출동을 나가게 됐다. 신고 사례는 경련 및 의식 저하였다. 현장 도착 후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경련은 멈춘 상태였고, 의식도 회복된 상태였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했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했다. 환자를 들것에 옮길 때 도와주기, 이송이 지체되지 않게 문 열어주기, 엘리베이터 잡아두기 등 작은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첫 출동이 끝나고 시간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병원 인계까지 소요된 시간이 몇 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임에도 신속한 현장 평가, 환자 처치, 병원 이송을 해내는 구급대원을 보면서 나도 저런 구급대원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응급구조과 2학년과 병원 실습 2번을 마치고서야 꿈에 그리던 소방 실습을 할 수 있었다. 내가 그토록 소방 실습을 그리던 이유는 꿈의 종착지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동부소방서에 모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4주간 실습을 할 곳인 조천119센터로 오게 됐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아준 직원들과 화목한 분위기 덕분에 오히려 가족 품에 온 것 같았다. 머릿속에 있던 긴장과 걱정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으로 바뀌었다. 그

뉴스-in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주택경기 활성화 등 기대 공공협력의원 23일 개원 예정 ○...제주도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주목.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등으로 취득자와 사업자 모두의 관심사항. 이와 관련,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공공협력의원 23일 개원 예정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들어선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개원식에 이어 27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 7일 공공협력의원 운영을 맡는 서귀포의료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의사 2명을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이번 주부터 개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다만 입찰을 통해 지난달 20일 낙찰됐던 민관협력약국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이래 최근 3차 공고에서 다시 낙찰자가 나왔는데 서귀포의료원 측은 "아직까지는 민관협력약국 개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만일에 대비해 진료 개시 후 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전선희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박흥일(前 중등교장) 아버님 밀양 朴公一文(향년 99세·前 제주경찰서장)께서 2025년 1월 6일 오후 3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5년 1월 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5년 1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동광 성당
▶장례미사: 2025년 1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아들 박흥일, 흥진, 흥률, 딸 박복희, 희진, 희영, 며느리 김희정, 조경희, 사위 이용길, 강덕웅, 강택철
친족대표 박관길·박관경
※ 연락처: 박흥일 010-3690-0625, 동광성당 064-721-9911

상속한정승인 공고
·망 이동현(1965년 6월 9일생) 2024년 8월 23일 사망
·최후주소: 제주시 연수로 40, 101동 405호(일도이동, 혜성대우아파트)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상속재권자 및 유증 받은 자는 공고일 부터 2개월 이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년 10782상속한정승인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4. 12. 9.
○ 망 이동현의 상속한정승인자 및 신고장소: 최인숙, 이승배 (제주시 연수로 40, 101동 405호 (일도이동, 혜성대우아파트))
○ 공고기간: 본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
○ 신고방법: 위 신고장소로 우편제출
2025년 1월 8일
상속한정승인자 최인숙 이승배

상속한정승인 공고
·망 장종철(1964년 8월 30일생) 2024년 4월 20일 사망
·최후주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70-1(협재리)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상속재권자 및 유증 받은 자는 공고일 부터 2개월 이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년 10520 상속한정승인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4. 10. 11.
○ 망 장종철의 상속한정승인자 및 신고장소: 정종관 (제주시 우형서로 51, 에이동 501호(외도일동, 한라주택))
○ 공고기간: 본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
○ 신고방법: 위 신고장소로 우편제출
2025년 1월 8일
상속한정승인자 정종관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번이

가족묘지 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